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 작문선

푸른 하늘에 나래치는 동심

《작문선》편집위원회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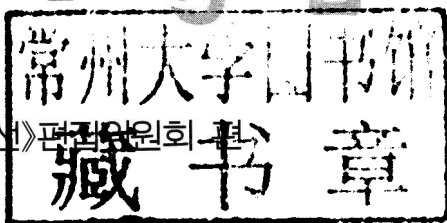


연변인민출판사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 작문선

푸른 하늘에
.....
나래치는 등심

《작문선》편집위원회 편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李永哲

责任校对: 金海燕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童心飞翔: 朝鲜文 / 延吉市少年儿童图书馆编.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10. 6

ISBN 978-7-5449-1197-9

I. ①童… II. ①延… III. ①朝鲜族-儿童文学-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8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0) 第120234号

童心飞翔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6.125 字数: 1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1197-9 (民文)

版次: 2010年6月第1版 2010年6月第1次印刷

印数: 1-3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관장 최옥란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 작문선의 출간에 즈음하여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소년아동도서관의 역사적리정표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선 작문선을 출간하기까지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은 “연변시조시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하에 자원봉사로 나선 김철학, 최문섭, 김학송, 류은중, 허련순, 김만석, 김득만, 류광철, 박순녀 등 시인, 작가, 교수 선생님들을 글짓기지도교원으로 모시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글짓기배움터입니다.

그 취지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문체에 따라 우리 말, 우리 글을 바르게 쓰고 글짓기수준을 더한층 제고하여 언제 어디에서든지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알



찬 글을 쓸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인 시조와 시를 잘 장악하도록 도움을 주려는데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드높은 책임감으로 참답게 글짓기지식을 강의하고 훈련시키고 아이들이 쓴 글을 하나하나 알심들여 질적으로 다듬고 제고시켜 이미 30여편의 글이 국내외 신문, 잡지와 같은 간행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뒤를 이어 오늘 또 알찬 작문선을 두손 받쳐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선물로 드릴수 있게 되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런 희열을 느끼게 되기까지 선생님들께서 바치신 로고가 그 얼마였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 작문선이 순리롭게 출간될수 있도록 많은 심혈과 도움을 주신 연변인민출판사 문예부 편집원선생님들 그리고 연길시문화신문출판체육국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먼 후날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에서 유명한 시인, 작가, 교수 선생님들을 지도교원으로 모시고 배운 우리 말 글짓기가 자기들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추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모름지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작문선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심혈을 바치신 모든분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7월

연길에서

축 사

연길시문화신문출판체육국 국장 김우

나는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에서 기획한 어린이
 작문모음집인 《푸른 하늘에 내려치는 동심》의 출간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1년전에 “작문교실”이 고고성을
 올릴 때 나는 연길시문화신문출판체육국을 대표하여 축사를 드
 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도서관 “작문교실”에 다니는 어
 린이들의 작품집이 출판된다니 실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수 없
 습니다.

지난 1년간 최옥란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들의 꾸준
 한 노력과 “연변시조시사” 김철학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인님,
 작가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알뜰한 특강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글짓기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국내 여러 어린이 신문과
 잡지들에 심심찮게 선을 보이고 한국에서 출판한 어린이시조단
 행본과 《어린이시조나라》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글짓기백일장에서도 상을 받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들의 로고도 많았지만 어린이들의 글짓기열정도 이만저만이 아님을 설명해줍니다. 나는 이렇듯 글짓기를 사랑하고 또 이번 작품집에 작품이 오른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또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앞서가는것입니다.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의 실천이 증명하는바 “연변시조시사”와 손잡고 “작문교실”을 개최한후 어린이들의 책 읽는 열조는 더욱 높아졌으며 글짓기에서도 남다른 기량을 떨치면서 훌륭한 글들을 써내고있습니다. 도서관은 인류의 모든 지혜가 저장되어있는 곳으로서 잘 운영하기만 하면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을 배워 푸른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에는 재능을 키울것입니다. 이번의 “작문교실”의 《작문선》출간이 이 점을 잘 설명해줍니다.

첫발자욱을 잘 떴으니 아름다운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듯합니다. 힘을 냅시다. 어린 친구들, 꿈을 더욱 무르익힙시다. 샘물처럼 깨끗한 동심에 무지개꿈을 실어 저 푸른 하늘에 더 높이 띄워봅시다. 다음의 더 알찬 어린이작품집 출간을 기대합니다.

2010년 5월 15일

축 사

연변시조시사 사장 김철학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 우리 “연변시조시사”에
 는 너무나도 익숙한 명칭으로, 너무나도 다정한 이름으로 다가
 오는 갈수록 뜻이 깊어져가는 활무대이다.

이 “작문교실”이 오늘 첫 우수작문선을 출판하게 되었다.
 최옥란관장과 내가 함께 “작문교실”간판을 걸던 때가, 연길시
 문화신문출판체육국의 김우국장과 내가 뒹어넘치는 열정으로
 축사를 드리던 때가 어제처럼 느껴지건만 벌써 그 개강식으로
 부터 1년이란 세월이 흘러 알알이 탐스러운 열매들을 주렁진
 첫 수확으로 걷어들이게 되었다.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지나간 1년 동안 최옥란관장을 비
 롯한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책임일군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합쳐
 시종일관하게 “작문교실”을 빈틈없이 잘 꾸려왔으며 작문교수를
 맡은 작가, 교수, 시인들이 후대들에 대한 고결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사심 없는 봉사성교수로 정성과 지혜를 바쳐왔다.

이 “작문교실”의 학원들과 “연변시조시사” 시조창단의 배우들이 2010년 정월대보름특별종목으로 출연한 시조표현은 그 의의가 심원하다고 볼수 있다. 시조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조를 짓고 어떻게 시조창을 부르는가를 함께 표현하여 연변위성텔레비존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리였다. 이것은 우리 중국땅에도 처음으로 되는 정채적이면서도 정채로운 시조의 종합적인 홍보인것이다!

이제 출판될 “작문교실”우수작문선을 펼쳐보면 아주 총명하고 더없이 사랑스러운 꼬마학원들이 써낸 매편의 글들은 읽을수록 생동감이 넘치고 감칠맛이 날것이다. 그동안 이렇듯 귀여운 애들의 손목을 살뜰하게 잡고 “작문교실”을 찾아온 연결시 여러 소학교의 30대 나젊은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싶다.

시장경제의 충격속에서 조선족 젊은 녀성들이 외국으로, 국내의 대도시와 연해지구로 뿔뿔이 흩어져 연변조선족자치주내에서 조선족이 점점 줄어들고있을 때 연결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의 나젊은 어머니들이 자기 애의 손목을 꼭 잡고 비오나 눈이 오나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는 애와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 작가, 교수, 시인님들의 강의를 빠짐없이 듣던 정경이 이 시각 더욱 감미롭게 되새겨진다. 참으로 오늘날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수 없다.

연길시소년아동도서관 “작문교실”에서 첫번째로 펼쳐낸 우

머리글 

수작문선의 출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보다 더 알찬 열매를 무
르익혀가기를 바라마지않는바이다.

2010년 7월

연길에서

차례

동요동시



사시절(외 2수)	제연행/ 3
시내물(외 1수)	박유나/ 5
눈꽃(외 1수)	김현우/ 7
눈꽃(외 5수)	맹지은/ 9
눈꽃	장로/ 13
시내물(외 5수)	서선녀/ 14
눈꽃(외 1수)	지현영/ 19
친구(외 1수)	김은성/ 21
친구	려미혜/ 23
엄마	김미령/ 24
시내물	리은정/ 26
눈꽃	허금봉/ 28



설날(외 4수)	윤미나/ 29
친구(외 3수)	리혜영/ 32
해님	홍려나/ 36
봄바람(외 1수)	량은주/ 37
바람(외 2수)	맹은희/ 39
눈송이	소예/ 41
바람	박혜옥/ 42
수도꼭지	최향미/ 43
쌩	김상의/ 44
흰 눈이 내리는 날	최천미/ 45
휴대폰	허호성/ 47
내 동생	김예영/ 48
봄바람	리현/ 49
겨울바람	김은여/ 51
구름	최은영/ 53
닭알	강진우/ 54
시내물	한예나/ 55

어린이시조



엄마	윤련화/ 59
엄마	김나영/ 60

엄마(외 3수)	김지훈/ 61
엄마	맹소연/ 63
설날	김향란/ 64
눈꽃	심령주/ 65
시내물	김성애/ 66
친구	량려홍/ 67
시내물(외 4수)	김서연/ 68
시내물(외 1수)	리현/ 70
설날	한성실/ 71
설날(외 1수)	강진우/ 72
보름달(외 1수)	서선녀/ 74
보름달(외 1수)	리혜영/ 75
웃놀이	김현우/ 76
보름달(외 3수)	제연행/ 77
보름달	소예/ 79
보름달(외 1수)	김은성/ 80
보름달	박유나/ 81
보름달	박서경/ 82
화투놀이(외 1수)	맹지은/ 83
그림자	장로/ 84
어머니	최향미/ 85
구름	최은영/ 86

생활문



난 동시가 참 좋다(외 1편)	마영훈/ 89
우리 집 개구리	김은여/ 94
배불뚝이책가방(외 3편)	김지훈/ 97
정월대보름	장로/ 102
할머니, 미안합니다	허금봉/ 103
파이팅(외 2편)	제연행/ 105
어머니의 사랑	서선녀/ 109
료리솜씨 짱	김은성/ 111
구름네 가족	리혜영/ 112
영똥한 동생(외 1편)	박유나/ 114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허예경/ 117
자신에게 감사할줄 알아야 한다	리현/ 119
건전하게 인터넷을 리용해야(외 1편) ..	지현영/ 121
잊을수 없는 하루	백려진/ 125
참회	김수영/ 127
넌 새조롱(외 1편)	강진우/ 129
칭찬	김성원/ 133
“사랑의 집”을 찾아서	천룡걸/ 134
책아, 고마와	오태우/ 136

독후감



생활의 진실	문애령/ 141
고민	마영훈/ 143
새롭게 인식한 닭알	박정은/ 145
서로 이해하고 양보합시다	김미연/ 147
존경스러운 사람	오령/ 149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	허소강/ 151
깨달음	림광진/ 153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하여	박지연/ 155
힘내	허혜경/ 157
네 그림은 특별해	한진/ 159
재미있는 책	장요문/ 161
위대한 모험가 위팅턴	박하경/ 162
위풍당당한 질리 흡킨스	박령혜/ 164
용감한 아이	류권진/ 166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로 될테야	김설경/ 168
속심의 말	박지연/ 170
강의한 의력을 지닌 아이	조령미/ 172
하늘의 할머니께	마영훈/ 174
하고싶은 말 몇마디	서복순/ 177



동요동시

